

불교의례의 지화장엄
— 장인별 지화(紙花)기법의 특징을 중심으로 —

A Research on Decorative Paper Flower of Buddhist Rituals

김태연

대구대학교 조형예술대학 교수

Kim Tae-yeon

Professor, Daegu University

1. 서론

2. 불교의례의 지화장엄

- 2-1. 영산재, 수록재 장엄
- 2-2. 꽃과 관련된 장엄
- 2-3. 육법공양의 의미

3. 장인별 지화(紙花)장엄 기법의 특징

- 3-1. 황은동(월화스님)의 지화장엄
- 3-2. 이기원처사의 지화장엄
- 3-3. 이병우(경암스님)의 지화장엄
- 3-4. 윤종규(해월스님)의 지화장엄
- 3-5. 이주환(석용스님)의 지화장엄
- 3-6. 김태숙의 지화장엄

4.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본 연구는 1981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한국 전통지화(傳統紙花)에 관한 연구 (1)~(14)의 내용 중 불교의례를 중심으로 연구된 논문을 바탕으로 영산재(靈山齋) 및 수록재(水陸齋)의 지화장인을 중심으로 지화기법의 특성에 대하여 비교 발표한다. 그 동안의 연구에 의하면 중요 무형 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된 영산재의 장엄 중 지화 제작 기법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지화장인은 黃銀同(月華스님), 李基遠 처사, 李秉祐(慶庵스님), 尹鍾規(海月스님), 李周奐(石龍스님)으로 조사 되었다. 한편 수록재의 장엄 중 지화 제작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지화장인은 金泰淑이 있다. 이들 장인별 지화 제작에 대한 특성을 중심으로 비교조사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산재의 지화장인인 黃銀同(月華스님)의 장엄지화의 종류는 운화를 비롯하여 12종류이며, 李基遠의 장엄지화의 종류는 살모란을 비롯하여 모두 7종류이다. 또한 李秉祐(慶庵스님)의 장엄지화의 종류는 싸리꽃을 비롯하여 5종류이며, 尹鍾規(海月스님)의 장엄지화종류는 수국을 비롯하여 6종류이다. 그리고, 李周奐(石龍스님)의 장엄지화의 종류는 대국화를 비롯하여, 모두 9종류로 조사 되었다. 한편 수록재 지화장인인 金泰淑의 장엄지화·종류는 작약을 비롯하여 모두 6종류인데 최근 불가에서는 수록재에 관심을 갖고 오랜만에 실행하고 있는 사찰도 더러 있다.

이와 같은 불교의례의 장엄지화기법의 종류는 모두 45가지로 조사 되었다. 이 중에 서로 명칭은 같은 것도 있으나, 장인마다의 솜씨에 따라 기법은 다양하게 표현 되어 똑 같은 모양의 지화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점차 간소화되어 사라져 가고 있는 불교의례의 原形을 보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영산재와 수록재의 장엄지화의 전통기법을 보존하고 지화 장인들의 기능보유를 위한 문화정책적 지원을 강조하면서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하였다.

주제어

지화, 지화장엄, 장엄지화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at comparing and analyzing the techniques and craftsmanship in the making of the decorative paper

flowers for the two typical Buddhist Rituals, Su-ryuk-jae and Yeong-san-jae, the latter designated as the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50. The paper flowers used in the Buddhist rites surpass any other kind in size and exquisiteness, thus acquiring the name of 'jang-eum' or solemn decorations.

The present study was based on a series of 14 studies on the traditional paper flowers in Korea presented by the author since 1981, but in this paper more emphasis was placed on the differences not only between the two rites but also in the craftsmanship and paper materials depending on the individual craftsman.

There exist five prominent skill retainers for the Yeong-san-jae paper flowers: Hwang Eun-dong (Monk Wolhwa), Recluse Lee Gi-won, Lee Byeong-woo (Monk Kyeongam), Yun Jong-gyu (Monk Haewol) and Lee Ju-hwan (Monk Seokyong), where as Kim Tae-suk is the only technique retainer for Su-ryuk-ja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Hwang Eun-dong (Monk Wolhwa), makes twelve kinds including cloud flowers; Recluse Lee Gi-won seven including peonies; Lee Byeong-woo (Monk Kyeongam) has techniques for five kinds, including bush clovers; Yun Jong-gyu (Monk Haewol) holds skills for six kinds. Lee Ju-hwan (Monk Seokyong) retains techniques for making nine kinds of flowers besides big chrysanthemums. Kim Tae-suk specializing in the Su-ryuk-jae paper flowers has the expertise of making six different kinds of decorative flowers along with peonies.

In conclusion, a total 45 different kinds of paper flowers are presently being produced by these representative artists. The techniques employed by the individual craftsman often share the same or similar names, but as the workmanship and techniques of the artists vary widely, their works denote these differences, thus strongly requiring us to restore the originality of the authentic forms and quality of paper flowers while stimulating the artists' creativity ever more.

Keyword

Paper Flower, Decorative Paper Flower

1. 서론

본 연구는 1981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한국 전통지화에 관한 연구 (1)~(14)의 내용 중 불교의례를 중심으로 연구된 논문을 바탕으로 영산재 및 수륙재의 지화장인을 중심으로 지화기법의 특성에 대하여 비교 발표하고자한다. 지화(紙花)에 대한 최초의 조사보고서로는 심우성선생의 1973년 12월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106호로 《꽃일(지화장)》을 들수 있다. 필자도 1980년부터 '한국 전통지화에 관한 연구'라는 논제로 조사 연구해 오고 있다. 그 동안 발표 한 논문에는 지역 별신제와 무속(巫俗)에 관련 된 지화기법연구가 대부분이나 불교의 영산재나 수륙재와 관련 된 논문도 4편정도 있다. 그리고 전통사회에서 근대화의 과정 속에 서구문화(西歐文化)의 유입으로 잠시 일반인의 생활 속에 의례 등 특수목적으로 만들어 사용했던 지화의 기법도 조사 발표 하였다. 또한 최근의 연구발표 중에는 궁중의례와 관련 된 지화의 기법을 재현전시 하기도 하였다. 그 동안의 연구에 의하면 중요 무형 문화재 제50호로 지정 된 영산재의 장엄 지화 제작 기법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지화장인은 황은동(월화스님), 이기원 처사, 이병우(경암스님), 윤종규(해월스님), 이주환(석용스님)으로 조사 되었다. 한편 수륙재의 장엄 중 지화 제작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지화장인은 이도주(도주스님)과 스님의 타계 후, 불교지화를 연구하는 김태숙이 수륙재 지화를 재현하여 전시회 등을 갖인 바 가 있다. 필자는 이들 장인별 지화 제작에 대한 특성을 중심으로 비교조사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그동안의 연구를 위해 서울 봉원사와 서울 조계사의 영산재를 준비하는 과정 중의 지화제작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수륙재는 부산의 관음사에서 재를 앞둔 4일간은 직접 지화제작에 참여하면서 전통적인 지화제작기법을 익히고자 하였다. 조사 중에 촬영, 기록 등을 통하여 채록한 자료를 분석 정리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 연구는 특히 간소화되고 사라져 가고 있는 불교의례의 원형을 보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따라서 영산재와 수륙재의 장엄지화의 전통기법을 보존하여 지화 장인들의 기능보유를 위한 지원을 강조하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2. 불교의례의 지화장엄

2-1. 영산재, 수륙재의 장엄

영산재나 수륙재의 구성은 안차비와 바깥차비에 의하여 구성된다. 안차비란 순수 불교적 의식절차를

말하고 바깥차비란 순수 불교적이 아닌, 보다 대중적이고 토속적이며 재래의 민속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하여 전통 문화적 의미를 지니게 한 의식절차를 말한다.¹⁾ 안차비는 일정한 의식 절차를 진행하는 형식을 지니고 있으며, 그 의식을 집행하는 장소도 대체로 법당 안이고, 경건한 분위기로 진행된다. 바깥차비는 야외법회란 특징을 지닌다. 야외에서 의식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그에 걸 맞는 진행절차가 필요하게 되고 사람들에게는 좋은 구경거리로서의 시청각적 효과를 수용하게 된다.²⁾

야외법당에는 패불을 내어 걸고, 도량장엄과 그 의식의 효과를 더욱 고양시키기 위하여 악기의 반주가 필요하고 한편 의식무용도 필요하다. 그리하여 삼현육각(三絃六角)등의 악기의 연주, 법고(法鼓)춤, 나비춤, 바라춤 등의 의식무용 등을 곁들이게 되므로 사람들에게는 좋은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바깥차비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장식품(裝飾品)을 불교용어로서 장엄(莊嚴)이라고 한다. 따라서 장엄은 불, 보살의 행(行)을 상징하는 공(功)의 형상(形狀)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불교에서는 「믿음(信)은 장엄에서 일어난다」고 하여 장엄에 특수한 종교적 의미를 부여한다. 이와 같이 영산재에서의 지화(紙花)는 중요한 장엄요소일 뿐만 아니라 도량을 부처님의 진리(眞理)가 마치 꽃과 같이 흩어져 수놓는다는 의미를 상징화하게 되는 것이다.

2-2. 꽃과 관련된 장엄

장엄이란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국토를 꾸미고 훌륭한 공덕을 쌓아 몸을 장식하고, 향이나 꽃 따위를 삼보님께 올려 상식 하는 일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불사(佛事)는 내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적으로 보면 도량의 범위를 정하여 번(幡)과 개(蓋) 등 가지가지 장엄으로 장식하는 것이니, 도량장엄(道場莊嚴)이라 말한다.

영산재나 수륙재의 장엄 중 꽃과 관련된 장엄은 다음과 같다.

1) 목단화(牡丹花) · 작약화(芍藥花)

색지(色紙)로 만든 지화(紙花)이다. 연화(蓮花)와 함께 목단, 작약, 국화, 연꽃 등이 받쳐진다. 영산작법의 할화(喙花)를 보면 목단은 묘유(妙有) · 작약은 진공(眞空) · 연화는 지조(志操) · 국화는 절개(節概)에 비유되고 있다. 꽃은 직경이 0.5척, 전체의 모습은 부채

살과 같게 꽃이 장엄한다. 전체 높이는 6척이며 수미단(須彌壇)이나 영산단(靈山壇)에 놓는다. 이때 단을 바라보며 오른쪽에는 목단, 왼쪽에는 작약이 놓인다.³⁾

2) 화개(花蓋)

화개는 인물개와 동일한 형태의 개이다. 상단에는 목단, 중단에는 작약, 그리고 하단에는 연화를 그려 넣는다. 의미는 목단화, 작약화와 같으며 크기는 인물개와 같거나 조금 작다.

3) 연화(蓮華)

연꽃은 정법(正法) · 전법(傳法) · 지조(志操) · 극락(極樂)등을 상징한다. 구품연대(九品蓮臺)에 왕생하기를 염원하는 것이다. 만드는 방법은 직경 5cm 굵기로 벗짚을 말아 길게 만들어 백지로 감싸 벗짚이 보이지 않게 한 후, 감로단 테두리를 따라 한 줄로 설치한다. 설치된 벗짚에 연잎과 연꽃을 2:1의 비율로 뺨뺨이 꽃아 장식한다. 이 때 연꽃은 직경이 약 15~20cm 정도, 연잎은 20~25cm 정도이다. 전체 규격은 감로탱화의 규격에 따라 정해지며, 재의 규모가 클 경우는 대웅전의 어간 및 결문에도 설치한다.

4) 산화락(散花落)

‘산화(散花)’란 본래 귀한 사람을 맞이하는 인도의 예법인데 불교에서 수용하여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의 일환으로 삼았다. 본래는 꽃을 뿌려 부처님의 도량을 청정케 한다는 의미도 있다. 불 · 보살께서는 꽃의 향기를 좋아하시고 또 그곳에 강림하시지만, 악귀(惡鬼)들은 꽃의 향기나 색을 마치 분예(糞穢)대하듯 한다고 한다.

의식으로 거행하는 산화락은 원래 의식으로 거행하던 것이 번(幡)의 형태로 변형되어 청정도량의 건립을 도모하게 된 것이다. 삼척지 전지를 세로로 사용하며, 천화(天花)를 상징하는 지름 7~8cm되는 환형(環形)에 지름 1cm 되는 구멍을 10개 정도 만든다. 세로로 세틀씩 만들어 상 · 하단에 색지(色紙)로 축(軸)을 드리운다.⁴⁾

5) 수파련(水波蓮)

수파련이란 잔치 때나 재회(齋會)에 종이로 만든 연꽃을 말하며, 편(餅)위에 장엄으로 꽃는다. 편은 부처님께 올리는 병과(餅果:떡과 과일)가운데 탁자 정중앙에 놓인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음식

1) 홍윤식, 영산재, 대원사, 1991, p32.

2) 홍윤식, 앞의 책, p34.

3) 심상현, 영산재, 국립문화재 연구소, 2003, p81.

4) 심상현, 앞의 책, pp89-90

섬취의 목적이 성불(成佛)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만드는 방법은 한 번이 25cm 정도 되는 정방형의 편기에 정방형으로 높이 40cm 정도 편을 꺾어 올리고 그 위에 옷기로 덮는다. 옷기는 삼각형으로 잘라서 변두리에서 중앙쪽으로 개와(蓋瓦)를 잇듯 덮어나가, 맨 마지막은 둥근 옷기로 마감하여 완성한다. 그 중앙에 60cm 정도의 싸리가지를 꽂고, 이를 중심으로 연꽃과 연잎을 3단계로 꾸며 올라간다. 이 작업이 끝나면 말총의 끝을 밀(蜜)로 수파련의 중심에 접착시키고, 다른 한 끝에는 금은박지로 만든 나비(蝶)를 밀(蜜)로 고정시킨다.

2-3. 육법공양의 의미

불가에서는 육법공양(六法供養)이 엄격히 지켜져 내려오고 있다. 육법공양이란 불단(佛壇)의 상단에 차리는 여섯가지의 공양물로서 香, 燈, 花, 果, 茶, 米가 그것이다.

향(香)공양은 공양 가운데 으뜸이다. 향의 덕(德) 가운데 '청정심신(淸淨心身)'과 '능제오예(能除汚穢)'를 생각할 때, 정보(正報)인 능례(能禮)와 의보(依報)인 도량(道場)을 청정하게 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하겠다. 등(燈)공양은 밀축, 대·소고등(大·小鼓燈), 금은패전(金銀掛錢) 등을 가리킨다. 이 공양은 등(燈)의 덕을 찬탄하며 등을 밝히는 의식으로 표현한다. 화(花)공양은 진리를 향한 마음을 의미하며, 4가지 종류의 꽃에 견주어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다. 생화(生花)는 곧 시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모란(牡丹)·작약(芍藥)·홍연(紅蓮)·황국(黃菊) 등을 지화(紙花)로 만들어 공양해온 전통이 있다. 과(果)공양은 귀의·발원·축원의 의미로 올리는 일종의 폐백(幣帛)이다. 차(茶)공양은 성불의 의지나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의 정성을 담은 신물(信物)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미(米)공양은 쌀로 지은 공양을 올린다는 것이다. 쌀은 농경생활인의 생명이다. 따라서 미공양은 곧 생명 받침을 의미하며 이는 부처님께 귀의를 표현하는 것이다.⁵⁾

이와같은 육법공양 중에서 지화는 영산재의 진행과정 중 여러 부분에서 나타난다. 영산재 중 지화(紙花)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상단의 장식부분이다. 그 외의 의식절차(儀式節次) 중에서는 나비춤을 출 때가 돋보였다.

나비춤은 영산재의 의식무용 중 하나이다. 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의식무용(儀式舞踊)을 행하는 것을

몸으로 法을 作한다고 하여 신업공양(身業供養)이라고 한다. 이에 는 바라춤, 나비춤, 법고춤 등이 있으며 작법무(作法舞)의 형식과 내용 중에서 지화(紙花)를 손에 들고 추는 춤을 “나비춤” 또는 “착복(着服)”이라고 한다. 이 춤은 불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춤으로 공양을 올릴 때와 찬불을 할 때에 추게 된다. 이때 지화 3송이의 묶음을 쥐고 춤을 춘다.

3. 장인별 지화(紙花)장엄 기법의 특징

3-1. 황은동(월화스님)의 지화장엄

황월화는 음력 무신생 1월 13일생이며, 가난했던 그는 10세에 진관사에 들어가서 지내다가 16세에 신흥사로 옮겨 범명을 받았다. 그는 신흥사의 초명허(超明虛)스님으로부터 꽃 만드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1990년 음력 6월 2일 입적 할 때까지 전국 방방곡곡의 재(齋)가 드는 다른 절과 연락하여 지화를 만들어 주고 생기는 작은 수입으로 살았다. 필자는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이십여차례 황월화 스님의 자택(을 방문하여 조사연구하였다. 황월화 스님의 지화기법의 종류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지화의 종류

① 불두화(A), 불두화(B), 작약, 운화(A), 운화(B), 너풀국화, 편모란, 살모란, 연화, 대솔박, 간화, 조선국화 등 12종류이다. 금붕어, 게, 메뚜기, 나비, 새도 만들었다.

2) 지화의 꽃색

① 보라색, 진다홍, 노랑, 적황색, 오렌지색, 흰색, 꽃분홍색, 연분홍색, 자주색 등 모두 9가지색이다.

3) 지화의 특징

- ① 꽃종이는 얇은 한지를 쓴다.
- ② 꽃도래의 직경이 27~28cm를 8~10장 끼워 꽃송이가 매우 크고 웅장하다.
- ③ 꽃대를 대나무가 아닌 싸릿대를 사용한다.
- ④ 제작과정에서 물을 추긴 소창감을 이용하여 꽃종이에 습기를 제공한다. 때대로 꽃도래를 습기가 있는 소창감의 사이에 넣고 발 다듬질을 한다.
- ⑤ 작약이나 운화 등에 「속락」이라는 꽃종이를 2장 넣어 제작한다. 꽃얼굴이 매우 크고 웅장하다.
- ⑥ 꽃송이 마다 겹딱지를 2장씩 끼워 고정시킨 후 깔대기를 끼운다.

5) 심상현, 앞의 책, p128

6)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72번지

⑦ 꽃잔등치는 법은 2가지를 사용한다.

꽃의 물색 조화대로 서로 어울리게 썬어서 잔등을 치는 법과 노란꽃은 노란꽃만으로 옆으로 나란히 배열하는 '무지개' 혹은 '색동'의 방법이 있다.

⑧ 꽃잔등은 위에서부터 (13+10+9+9+5+3=49)송이를 꽃아 홀수로 꽃아 영산재의 도량을 장엄한다.



[사진 1-1]



[사진 1-2]



[사진 1-3]



[사진 1-4]

3-2. 이기원 처사의 지화장엄

이기원은 1934년 10월 6일생으로 영산재의 지화장인이다. 이기원은 고인이 되신 이종복(동은스님)의 아들이어서 지화장엄을 부친으로부터 전수받았다. 그는 2003년 한국 불교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의 '지화장엄' 출판사업을 계기로 34년 만에 촬영을 위해 지화를 제작하였으며, 2003년 9월 28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영산재의 장엄 일절을 맡아 3개월이나 소요되는 제작 과정을 거쳐 옛 기법대로 재현한 장인이다. 이씨의 조사는 2003년 9월 2일 이후부터 재를 마칠 때까지 조사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이기원처사의 지화기법의 종류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지화의 종류

① 살모란, 작약, 국화, 연화 4가지, 파리아, 연봉, 부들, 연잎 5가지, 나비 등 모두 7종류이다.

2) 지화의 꽃색

① 꽃색은 빨강, 노랑, 분홍, 연분홍, 진분홍, 갈색,

청색, 흰색, 보라색 등이다.

3) 지화의 특징

① 꽃종이는 얇은 한지를 쓴다.

② 꽃도래의 지름은 20cm 크기이며 8~10을 끼워 한 송이를 만든다.

③ 줄기는 싸릿대를 사용한다.

④ 제작과정에서 물을 주긴 소창감을 이용하여 꽃종이에 습기를 제공한다. 때대로 꽃도래를 습기가 있는 소창감의 사이에 넣고 발 다듬질을 한다.

⑤ 꽃얼굴이 풍성하고 탐스럽다.

⑥ 난등치는 방법은 '무지개'처럼 같은 색을 옆으로 나란히 배열하는 부채난등과 불단 앞에는 색상을 조화있게 사방으로 고루 꽃아 장엄하는 팽이난등이 있다.

⑦ 영산재에는 부채난등으로 꽃는다.

난등치는 순서는 위에서부터 (10+9+8+7+6+5+4=49)송이를 꽃는다.



[사진 2-1]



[사진 2-2]



[사진 2-3]



[사진 2-4]

3-3. 이병우(경암스님)의 지화장엄

이병우(李秉祐)의 법명은 경암(慶庵)이다. 이병우는 1937년 8월 10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302번지에서 출생하였다. 현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8번지에 거주한다. 이씨는 군을 제대 한 직후 (당시 20살) 절에 들어와 1967년 봉원사 최영월 화상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하였고, 1968년 황월화 스님 문하에서 도량장엄을 전수했다. 1969년에 전한숙(57세)과 결혼하여 슬하에 1남 3녀를 두었으며, 1974년부

터 영산재나 방생대법회가 있을 때는 부인의 도움을 받아 장엄을 해오고 있었다. 그는 1988년 7월 31일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장엄)로 선정되었으며, 1989년부터 정지광 스님께 지화(紙花)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병우의 조사는 2002년부터 시작하여 2004년까지 이루어졌으며, 대구 팔공산의 영산재에도 참여하여 조사연구하게 되었다. 이병우의 지화기법의 종류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지화(紙花)종류와 기법

① 작약, 불두화, 연꽃, 목단화, 싸리꽃 들 5종류이다.

2) 지화의 꽃색

① 2003년 6월 4일의 봉원사 영산재에 사용한 지화의 종류와 꽃색

㉠ 작 약- 분홍색 꽃에 노랑색 꽃심을 넣은 것, 흰색 꽃에 노랑색과 빨강색 꽃심을 넣은 것, 노랑색 꽃에 빨강색 꽃심을 넣은 것, 주홍색 꽃에 노랑색과 빨강색 꽃심을 넣은 것, 진분홍색 꽃에 노랑색 꽃심을 넣은것

㉡ 불두화- 연두색, 흰색, 진분홍색, 노랑색, 주황색

㉢ 연 꽃- 흰색, 분홍색, 노랑색, 주황색, 진분홍색, 연노랑색

㉣ 목단화- 연분홍색, 연보라색, 연노랑색, 흰색, 주황색, 진분홍색

㉤ 싸리꽃- 흰색, 노랑색, 진분홍색, 연두색, 주황색

3) 지화의 특징

① 꽃종이는 짜라이(상업용 명칭)종이를 주로 사용하고, 잎에 사용하는 종이는 양면지로서 120짜리 포장지를 사용하며 구입처는 방산시장의 지업사에서 구입한다. 한지를 사용할 때는 조계사 앞의 지업사에서 구입하나 한지로 꽃을 만들면 힘이 약하고 양지는 힘이 있어 오래 간다.

② 꽃도래의 지름은 26cm 크기이고, 한 송이에 8장을 끼워 만든다.

③ 줄기는 대나무를 주로 사용하며, 대나무는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기계로 둥글게 다듬은 것을 사와서 찬물에 초록색 염료를 타서 담구고, 염색된 것은 그늘에 말려서 사용한다. 연잎을 붙일 때에 둥글게 다듬은 어묵 꽃이용 나무를 사용한다.

④ 후로랄데프와 오공본드나 밀가루 풀을 쑤어서

접착제로 사용한다.

⑤ 꽃의 색상과 뒷받침의 색상은 서로 조화가 잘 되는 다른 색상으로 받쳐 꽃의 색이 돋보이게 한다.

⑥ 꽃는 순서는 위에서부터(7+8+9+8+9+8+5+4=58)송이를 꽃는다.



[사진 3-1]



[사진 3-2]



[사진 3-3]



[사진3-4]

3-4. 윤종규(해월스님)의 지화장엄

윤종규는 1951년 음 5월 29일생이다 . 7살 때 외가에 갔다오던 길에 길을 잃고 해매다가 어느 스님과 함께 절에 오게 된 것이 스님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는 포항 임허사에 있을 때 무속들

이 곳을 할 때 꽃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보고 절에 재를 지낼 때 꽃을 만들어 사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모란, 작약 등을 만들게 되었다. 1976년 송암스님의 권유로 봉원사로 옮겨 살게 되었고, 황월화스님으로부터 다시 꽃을 배우게 되었다. 윤씨는 1992년부터 2003년까지 10회에 걸쳐 대구지역에서 영산재 지화제작과 도량장엄의 일을 맡아 온 장인이다. 필자는 이러한 계기에 조사한 자료를 연구 정리 한 것이다. 윤해월스님의 지화기법의 종류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지화의 종류

① 잡화, 수국, 연꽃, 살모란, 장미, 국화 등 6종류이다.

2) 지화의 꽃색

① 꽃색은 빨강, 노란, 연분홍, 진분홍, 주황, 보라, 연초록, 흰색 등이다.

3) 지화의 특징

- ① 꽃종이는 화지(화지)를 쓴다.
- ② 꽃도래의 지름은 25cm의 크기이며 7장을 끼워 한 송이로 만든다.
- ③ 줄기는 대나무를 사용한다.
- ④ 꽃얼굴이 둥글고 단정하다.
- ⑤ 배열방법(난등치기)도 여러 가지 색상의 꽃을 고루 고루 섞어가며 잘 어울리게 꽃는다.
- ⑥ 꽃는 순서는 분아래 에서부터 (3+4+6+7+9+10+12+11=52)송이씩 꽃는다.



[사진 4-1]



[사진 4-2]



[사진 4-3]



[사진 4-4]

3-5. 이주환(석용스님)의 지화장엄

이주환은 1967년 8월 1일에 충북 단양면 백자리에서 태어났다. 4세부터 10세가 될 때까지 경북 봉화에서 살았으므로 지금도 경상도 말씨를 구사하고 있다. 16세에 불가에 들어와서 1985년부터 송암스님으로부터 영산재의 의식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지화는 1988년 지광스님께 전수받았다. 지금은 구인사에서 영산재 등 중요한 재에 지화 뿐만 아니라 기타 다양한 장엄을 제작하기도 하는 지화 장인이다. 본 논문의 조사는 2005년 제2회 전통지화장엄전을 준비하는 2005년 7월 17일~19일 가운데 조사 된 것을 정리 발표한다. 이주환의 지화기법의 종류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지화의 종류

① 살모란, 살곶작약, 모란, 작약, 국화(소국), 대국화, 실국화, 연화, 수국 등 모두 9종류이다.

2) 지화의 꽃색

① 꽃색은 빨강, 연노랑, 진노랑, 분홍, 연분홍, 진분홍, 주홍, 연한주홍, 갈색, 청색, 흰색, 보라색, 진보라색, 연두색, 남청색 등 20여 색이다. 색상의 특징이 현대의 파스텔톤의 색상 등 매우 다양한 색상을 표현하고 있다.

3) 지화의 특징

- ① 꽃종이는 얇은 한지를 쓴다.
- ② 꽃도래의 지름은 꽃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5~27cm크기이며 4~16장을 끼워 한 송이를 만든다.
- ③ 줄기는 옛날에는 대나무를 다듬어 썼으나, 요즘은 편리한 오넵용 꽃이를 사용한다.
- ④ 후로랄테프와 오공본드나 밀가루 풀을 쑤어서 접착제로 사용한다.
- ⑤ 꽃얼굴이 다양한 색채와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조형성이 특히 돋보인다.
- ⑥ 난등치는 방법은 '무지개'처럼 같은 색을 옆으로 나란히 배열하는 부채난등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지만 꽃의 형태와 색채등 현대적인 조형성을 돋보이게 제작한다.
- ⑦ 영산재에는 부채난등으로 꽃는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는 전시용 부채난등에 대해서만 발표한다. 난등치는 순서는 위에서부터 (6+6+6+6+5+4+3=36)송이를 꽃는다.



[사진 5-1]



[사진 5-2]



[사진 5-3]



[사진 5-4]

3-6. 김태숙의 지화장업

김태숙은 1954년 9월 29일 대구시 중구 동인동 3가 12-1에서 2남7녀의 둘째로 태어났다. 지금은 경북 경산시 정평동 한서 신혼아파트 101동 806호에 살고 있다. 남편 경규철과의 사이에 3녀를 두고 있다. 김씨는 1972년부터 플라워디자인을 필자로부터 배우면서 대구꽃예술중앙회에 근무하게 되었다. 이때 꽃과의 깊은 인연을 맺게 된 셈이다. 수록재 전통지화는 2002년 필자를 도와 경주에 있는 대인사의 이도주스님의 전통지화 조사에 참여한 인연으로 전수받게 되었는데, 2003년 11월 갑자기 작고하신 도주스님의 발원이 너무도 안타깝고, 수록재의 전통지화기법이 그냥 사라질 형편을 고려하여 필자로부터 권유받아 스님의 기법을 잇고자 하였다. 2004년에는 세계박물관대회 개최기념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초대전에 수록재 지화를 제작하여 전시 및 시연도 하였으며, 국립민속박물관의 전통지화교실의 전담강사로서 전수교육 및 꽃예술 전시기획 등의 일로 활동하였다. 다행히 2006년 윤 7월을 맞아 각 사찰에서 빈번히 봉행되고 있는 수록재, 영산재, 예수재를 조사 하던 중 지난 2006년 9월 21일 부산 관음사의 수록재<사진5>에 지화를 담당하여 제작 장엄하게 되었고, 수록재의 장엄연구로 2007년 디자인학 석사를 취득하였다.

- 1) 지화의 종류
 - ① 작약, 따리아, 연꽃, 국화, 목단, 칠경화 등 6종류이다.
- 2) 지화의 꽃색
 - ① 꽃색은 모두 흰색이며 수술부분만 노랑색을 사용한다.
- 3) 지화의 특징
 - ① 꽃종이는 화지를 사용하며, 색상은 모두 흰색만을 사용한다.
 - ② 꽃도래의 지름은 9~18cm의 크기이며 20장을 끼워 한 송이로 만든다.
 - ③ 꽃은 외도래, 접도래로 만들며 꽃송이의 크기도 차이가 지게 만든다.
 - ④ 줄기는 대나무를 다듬어 사용한다.
 - ⑤ 배열방법(난등치기)은 흰색의 꽃을 아래에서부터 가지런히 잘 어울리게 꽂는다.
 - ⑥ 꽂는 순서는 분아래 에서부터 (4+5+5+6+7+9=36)송이씩 꽂는다.



[사진 6-1]



[사진 6-2]



[사진 6-3]



[사진 6-4]



[사진 6-5]



[사진 6-6]



[사진 6-7]



[사진 6-8]



[사진 6-9]



[사진 6-10]

4. 결론

본 연구는 1981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한국 전통지화(傳統紙花)에 관한 연구 (1)~(14)의 내용 중 불교의례를 중심으로 연구된 논문을 바탕으로 영산재(靈山齋) 및 수륙재(水陸齋)의 지화장인을 중심으로 지화기법의 특성에 대하여 비교 발표한다. 그 동안의 연구에 의하면 중요 무형 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된 영산재의 장엄 중 지화 제작 기법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지화장인은 황은동(월화스님), 이기원위 처사, 이병우(경암스님), 윤종규(해월스님), 이주환(석용스님)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수륙재의 장엄 중 지화 제작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수륙재 지화장인인 김태숙이 있다. 이들 장인별 지화 제작에 대한 특성을 중심으로 비교조사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산재의 지화장인인 황은동(월화스님)의 지화장엄의 종류는 운화를 비롯하여 12종류이며, 이기원의 지화장엄의 종류는 살모란을 비롯하여 모두 7종류이다. 또한 이병우(경암스님)의 지화장엄의 종류는 싸리꽃을 비롯하여 5종류이며, 윤종규(해월스님)의 지화장엄종류는 수국을 비롯하여 6종류이다. 그리고, 이주환(석용스님)의 지화장엄의 종류는 대국화를 비롯하여, 모두 9종류로 조사되었다. 한편 수륙재 지화장인인 김태숙의 지화장엄·종류는 작약을 비롯하여 모두 6종류인데 최근 불가에서는 수륙재에 관심을 갖고 오랜만에 실행하고 있는 사찰도 더러 있다.

이와같은 불교의례의 장엄지화기법의 종류는 모두 45가지로 조사되었다. 이 중에 서로 명칭이 같은 것도 있으나, 장인마다의 솜씨에 따라 기법은 다양하게

표현 되어 똑 같은 모양의 지화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점차 간소화되어 사라져 가고 있는 불교의례의 원형(原形)을 보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영산재와 수륙재의 지화장엄의 전통기법을 보존하고 지화 장인들의 기능보유를 위한 문화정책적 지원을 강조하면서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하였다.

현재 문화정책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분야는 무형문화재 제 50호로 지정된 영산재이며, 이 영산재 속에 지화장엄의 기능을 갖은 이병우(경암스님)가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 노동부에서 지화공예분야에 기능전승자로 이기원 처사를 지정하여 매월 일정연구비를 지원하게 되었다기에 전통지화공예의 기능전승자나 연구자로서 매우 반가운 마음이

참고문헌

- 김태연, 한국지화에 관한 연구(5), 대구대학교 가정생활연구소 vo 7, 1992
- 김태연, 한국전통지화에 관한 연구(10), 한국공예논총 제6권2집, 2003
- 김태연, 한국전통지화에 관한 연구(11), 한국화예디자인학연구 vol.12, 2005
- 김태연, 한국전통지화에 관한 연구(14), 한국공예학회 추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2006
- 심상현, 영산재,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 홍윤식, 영산재, 대원사, 1991